

서울의 중국어 이름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

홍 윤 기**

<목 차>

1. 서론
2. 漢城을 首爾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의 대두
3. 首爾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반론
4.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5. 首爾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
 - 5.1 으뜸가는 수도
 - 5.2 맨 처음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밝게 비추는 도시
 - 5.3 맨 먼저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도시
 - 5.4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같은 도시
 - 5.5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도시
 - 5.6 으뜸으로 가득 찬 도시
6. 결론

1. 서론

본인은 1994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국어 이름인 ‘首爾’(한글 발음은 서우얼)을 지었다.¹⁾ 본고의 연구목적은, 본인이 首爾(서우얼)이라는 이름을 지

* 본 논문은 2018년 고려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한 논문임. (과제번호: K1803371)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wenxin@korea.ac.kr)

1) 서울의 중국어 간체자 표기는 ‘首尔’이고 정체자 표기는 ‘首爾’이다. 본고는 ‘首爾’을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며, 서술의 필요에 따라 首尔를 사용하기로 한다. 首爾의 한글 발음은 문화

으면서 세웠던 이름 짓기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본인이 창조하려고 하였던 首爾의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2005년 1월 19일, 당시 서울시 시장 이명박은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首爾’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고, 중국 측에게 서울을 ‘한성(漢城)’ 대신 ‘首爾’로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²⁾ 2020년 현재, 首爾은 비공식적으로는 태어난 지 벌써 26년,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태어난 지 15년이 지나고 있다. 처음 首爾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내부에서도 한때 首爾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관방의 언론매체를 포함하여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같은 세계적인 지도 사이트의 중국어판에서도 서울을 나타내는 중국어 표기로 首爾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의 중국어 표기인 首爾에 관하여 학술적 성격을 띤 논문은 몇 편 발표되지 않았다. 이들 논문 가운데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에 관하여 언급한 논문은 엄익상의 논문 1편뿐이다.³⁾ 그 논문에서 엄익상은 ‘서울 중국어표기개선추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首爾 표기의 우수성과 적합성을 주로 고찰하였다. 그러나 首爾이라는 중국어 이름을 지은이가 어떤 이름 짓기 원칙을 가지고 首爾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와 의미를 창조하려고 했는지에 관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본인은 1994년부터 국내의 대학에서 강사로서 중국어를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교재에서 사용하였던 서울의 중국어 이름인 ‘漢城’(중국어 발음은 한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꼈었다. 이에 본인은 그때 ‘首爾’이란 이름을 지어서, 학생들에게 漢城을 首爾로 고쳐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首爾로 고쳐서 강의하였다. 그리고 2004년 3월 서울시가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공모하였을 때⁴⁾, 首爾의 중국어 이름을 응모하여 채택되었다. 본인은

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제시하는 중국어의 발음부호에 따라서 ‘서우얼’로 하기로 한다.

2) 《한국경제신문》, <‘서울’ 중국어 표기 ‘首爾’(서우얼)로 확정>, 2005. 01. 19.

3) 엄익상, <首爾: 서울 새 중국어 지명의 이론적 근거>(한국중어중문학회, 《중어중문학》 제36집, 2005)

그때 당시 서울의 중국어 이름으로 首爾을 제안하였던 37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림1]은 서울시가 본인에게 수여한 상장이다.⁵⁾

2004년 본인은 서울시의 중국어 이름의 공모에 응모할 때, 응모원서인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에서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들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림2]는 본인이 2004년 서울시에 제출하였던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이다. 본인의 개인 정보에 관한 내용



[그림1] 서울의 중국어 표기 '首爾' 채택 상장

만 삭제하였고, 나머지는 원본 내용 그대로이다. 일부 내용에는 오타가 있고⁶⁾, 내용과 형식이 매우 거칠기는 하지만, 首爾의 의미와 이미지, 표기, 발

4)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215호,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 공모>.

5) 그때 담당 공무원은 내게 전화를 걸어, 난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당시 공고에는 당선인에게 줄 상금 300만 원인가를 내걸었는데, 예상과 달리 '首爾'로 응모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다. 나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일에 응모한 분들은 서울 시청(市政)의 공익적 목적에 힘을 보태려는 분들이지, 상금을 보고 응모한 분들이 아닐 것이다. 먼저 전체 상금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상장을 수여해서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다들 동의할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나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이 일은 그렇게 해결되었다.

6)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 안의 내용 가운데, '서울을 '首爾'로 표기한 적이 있다'의 '首爾'은 '首爾'의 오타이다. '尔'자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되지 않아서 '首爾'자로 작성된 글자들을 '首爾'로 따 붙이기를 하는 과정에서 '首爾'까지 '首爾'로 잘못 따 붙이기를 하였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 양식(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홍윤기 (주민등록번호 삭제)
주소	(삭제)
연락처	(삭제)
이메일	(삭제)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	“首尔”
서울의 중국어 표기개선안의 의미 및 선정이유 (50자 이내)	<p>의미: “首尔”은 “ 으뜸의 도시/최고의 도시/”라는 뜻이다. 이유: “首尔”은 첫째, 그 이미지에 있어서: 1. 활기차고 2. 긍정적이며 3. 진취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둘째, 표기와 발음에 있어서: 1. 서울에 발음에 가깝고 2. 읽기 쉽고 3. 쓰기 쉽고 4. 단순하다. 셋째, 역사적으로: 1. 조선시대 중기에 서울을 “首尔”로 표기한 적이 있다. 넷째, 중국인에게 외국어 수도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 1. 알제리의 수도는 ‘阿尔及尔’이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喀布尔’이다. 그밖에 ‘尔’를 끝 글자로 쓰는 나라의 수도이름은 꽤 많다.</p> <p>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글자: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글자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글자를 쓰면 절대 안 된다.</p> <p>◆ “首坞尔” - 머리가 (혹은 가장) 불행한/더러운/어리석은 도시. ① ‘坞wù’는 ‘烏wū.wù’가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까마귀는 중국인에게도 ‘검다(烏黑)’ ‘어리석다(烏煤)’ ‘더럽다(烏点)’ ‘죽음(烏命)’ ‘불행(烏鴉)’ ‘사악함(老鴉說猪黑-까마귀가 돼지보고 검다한다)’을 의미한다. ② ‘坞wù’자의 발음은 ‘더럽다 汚wū’, ‘잘못하다 誤wù’, ‘미워하다 惡wù’ ‘탄식하다 嗚呼’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글자와 같이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③ ‘坞’자는 ‘작은 성이나 보루 小型城堡’, ‘자면이 높고 가운데가 낮은 지형’ ‘촌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국지》의 가장 사악한 인물인 동탁의 근거지가 ‘鄯坞’였다.</p> <p>◆ “首兀尔” - 목이 잘린 멍청한 도시. ① ‘兀’자는 ‘우뚱하다’는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뚱함이란 ‘높고 위가 평평한 지형’의 모습을 따른 글자이다. 머리/목이 없는 지형이란 뜻이다. 따라서 “兀”자에는 머리가 없어서 ‘멍청한’, ‘어리석은’이란 뜻이 있다. 게다가 그 앞에 ‘머리’를 의미하는 ‘수(首)’자까지 있으니 완벽하게 뜻이 이루어진다. ‘목이 잘린 도시’ ‘머리 없는 멍청한 도시’ ② 서울은 ‘兀’의 서울의 실제지형과는 상관없음에도 중국인에게 서울은 ‘마추비추’와 같은 지형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③ 참고로 《장자》에 나오는 ‘兀者’는 형벌을 당하여 한 쪽 다리가 잘린 사람을 뜻한다. ‘도울(樵táo 兀)’에서도 ‘兀’자가 들어 있는데, 이 ‘도울’은 중국 전설에서 사악한 동물이나 악인을 가리킨다.</p>

[그림2] 2004년 본인이 서울시에 제출하였던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 양식

음, 역사, 중국어 지명의 조자 원리, 금기 사항 등 이름 짓기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본인은 그때 당시 ‘首塢爾’와 ‘首兀爾’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갖는 이름이 서울의 중국어 표기로 선정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였으므로, 금기 사항에 관하여 서술의 많은 분량을 안배하였다. 이 때문에 首爾의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못하였다.⁷⁾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본인은 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안>에서 충분히 밝히지 못했던,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과 더불어 首爾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창조하고자 하였던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에 관한 나의 최초의 구상을 지금이라도 밝히고 싶었다.

본고에서 ‘서울’은 지명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를 뜻하며, ‘首爾’은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외국어에 대한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을 따랐다.

2. 漢城을 首爾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의 대두

서울의 중국어 이름인 ‘首爾’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국은 서울의 중국어 이름으로 ‘漢城’을 썼었다. 대표적으로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이전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중국 언론들은 ‘한청 올림픽(漢城奧運會)’라는 이름으로 불렀었다. 그러나 서울을 한청(漢城)으로 발음하고 표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서울’과 한성(漢城)의 중국어 발음인 ‘한청[Hànchéng]’은 그 발음이

7) 본인이 당시에 이에 관한 논문을 쓰지 않았던 주요 원인은, 서울의 중국어 표기 개선 정책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 서울특별시장 이명박의 정치적 견해에 찬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인은 그 당시 이에 관한 논문을 씀으로써, 이명박의 정책을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굳이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首爾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인은 중국인이 말하는 ‘한청’이 어디인지 몰랐고, 중국인은 한국인이 말하는 ‘서울’이 어디인지 몰랐다.

둘째, 한성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인상을 주었다. 한성(漢城)이라는 지명은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많은 곳에서 등장한다. 조선 왕조는 태조 3년(1394년)에 도읍을 개성(開城)에서 지금의 서울로 옮기었고, 이듬해인 태조 4년(1395년)에 한양부(漢陽府)를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하였다.⁸⁾ 그리고 일제강점기(1910년 8월-1945년 8월)에는 1910년 10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制)>에 따라 한성부(漢城府)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었다. 조선의 한성(漢城)은 일제강점기에 경성(京城)으로 불렸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드디어 ‘서울’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한성(漢城)은 오랜 역사를 가진 이름이었지만, 그만큼 낡은 이름이기도 하였다.

셋째, 한성(漢城)은 중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로 오해받을 수 있었다. 한성은 중국을 뜻하는 한(漢)자와 군사방어시설과 도시를 뜻하는 성(城)자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어를 한어(漢語), 중국 문자를 한자(漢字), 중국의 최대 민족을 한족(漢族)으로 부르는 용례로 보았을 때, 한성(漢城)은 마치 중국의 도시처럼 오해될 수 있었다. 물론 이 한성(漢城)의 ‘한(漢)’은 위에서 언급한 《태조실록》의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한양(漢陽)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지명 뒤에 붙는 ‘~陽’은 ‘~산의 남쪽 또는 ~강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므로, 한양(漢陽)은 (북)한산(漢山)의 남쪽과 한강(漢江)의 북쪽 지역인 서울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한’은 우리의 고유어인 한글의 ‘크다, 넓다, 높다, 많다, 못’의 뜻과 수의 기본수인 하나에서 나온 ‘한’, 그리고 ‘한가운데, 한겨울’이라는 말에서처럼 중앙, 중심이라는 뜻을 담은 ‘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漢’은 한글의 ‘한’을 음차(音借)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국인들은 이를 이해

8) 《태조실록》 7권, 태조 4년(1395년) 6월 6일: “한양부(漢陽府)를 고쳐서 한성부(漢城府)라 하였다.(改漢陽府爲漢城府.)”

하지 못하였다. 일부 중국인은 ‘한성(漢城)’이란 이름이 중국 고대의 한(漢) 왕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였다. 한청(漢城)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중국적인 느낌을 주었던 모양이다. 지금도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를 검색해보면⁹⁾, 실제로 ‘한청(漢城)’이라는 중국 지명 5곳을 찾을 수 있다.¹⁰⁾

넷째, 한성(漢城)은 전투 또는 전쟁의 느낌을 주었다. 한성(漢城)의 성(城)은 군사방어시설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성은 평화로운 도시의 느낌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또는 전쟁을 대비하는 도시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이 종전되지 않고 휴전인 상태에서, 한성은 짐짓 전쟁 재발의 잠재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었다.

다섯째, 한성(漢城)은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였다. 서울대학교와 한성대학교는 서로 다른 대학교임에도 중국어로는 모두 ‘漢城大學’이었다. 이러한 혼돈은 행정 처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래로 중국인이 ‘서울’을 조선 시대의 이름인 ‘한청(漢城)’으로 부르고 표기함으로써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고, 본인을 비롯한 일부 한국인들은 서울의 발음에 가까운 중국어 이름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3. 首爾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대한 반론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중국과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바이두: <http://baike.baidu.com>

10) 짜오양 한청(棗陽漢城), 시안시 웨이양취 한청제다오(西安市未央區漢城街道), 쉬저우 한청(徐州漢城), 페이셴 한청(沛縣漢城), 신예셴 한청제다오(新野縣漢城街道).

일부 중국인들은 首爾이라는 이름이 한국의 반중국적 민족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겼다. 首爾의 이름을 지은 지은이로서, 首爾의 이름 짓기를 자주적 민족의식과 굳이 연결하겠다면,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중국적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그 자신이 오히려 편협한 배타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본인은 중국 문학 전공자로서 으뜸가고, 밝고,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이상과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지어보고 싶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반중국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청(漢城)'이라는 이름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국인의 서울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서울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도와서, 상호우호적인 교류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어의 조자(造字)는 중국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이 이래라저래라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영문의 조자는 영국인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인가? 국명과 지명의 표기는 그 국가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며, 이것은 국제적 관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과거 '몽골(Mongol)'을 중국식 한자어를 따라서 '몽고(蒙古)'로 불렀다가,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몽골'로 부르게 된 것은, 몽골 사람들의 의견을 마땅히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다수 중국 언론과 학자들이 '이름은 그 주인의 요청을 따라야만 한다. (名從其主)'는 의견을 제시하며, '首爾'의 중국어 표기에 찬동하고 이를 기꺼이 사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는 중국인의 절대다수가 이웃 나라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며 우호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뜻한다.

일부 한국 사람들도 서울의 중국어 표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었다.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가 주도하여 서울의 중국어 표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한민국학술원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남의 나라말의 발음에 맞추어 제 나라 수도 명칭을 정한

다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해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대주의의 발상¹¹⁾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서울의 수도 이름은 분명히 '서울'이다. 서울의 수도 이름을 '首爾'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영문 표기가 'Seoul'(서울)이고, 일문 표기는 'ソウル'(소우루)인 것처럼, 중국어 간체 표기를 '首尔'(서우얼)로, 중국어 정체 표기를 '首爾'(서우얼)로 그 표준적인 이름과 표기를 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려하는 사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우리가 首爾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중국 측에 허락을 받으려는 그 과정 자체가 사대주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것이다. "중국 측이 사용하는 漢城이라는 조선 시대 서울의 이름이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서울의 중국어 이름과 그 표기를 '首爾'로 결정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중국 측이 서울시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서울의 중국어 표기인 '首爾'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당시 서울시의 행정 처리 과정의 실체이다. 서울시가 중국 측에게 '요청'하는 것이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¹²⁾ 그 과정 또한 사대주의와 어떤 관련도 없다.¹³⁾

이러한 반대 의견들은 사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4.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본인은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웠다.

-
- 11) <서울의 중국어 표기 '首爾, 首午爾'에 대하여>,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글漢字 문화》 제60권, 2004. 07.
 - 12) 《MBC 뉴스데스크》, <서울시, 한성 대신 '서우얼'로 한자표기 변경 중국 측에 요청>, 2005. 01. 19. https://imnews.imbc.com/replay/2005/nwdesk/article/1935053_30781.html
 - 13) <漢城을 '서우얼'로 부르라고? 흥!>, 《오마이뉴스》, 2005. 01. 26.

첫째, 서울의 중국어 표기 발음은 한글 서울의 발음에 가까워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발음의 유사성이었다. 서울을 한청(漢城)으로 부름으로써 비롯된 수많은 문제점은 '서울'과 '한청'의 발음 불일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 서울의 영문 표기는 'Seoul'(서울)이고, 일문 표기는 'ソウル'(소우루)이다. 이들 표기의 발음은 서울의 발음에 비교적 가깝다. 서울의 중국어 표기 발음도 서울의 발음에 가까워야만 한다. '首爾'(shǒuěr: 서우얼)은 서울의 발음에 매우 가까운 중국어 표기이다. 아울러 발음의 편이성과 선명성을 고려하였다.首爾은 2음절이며 비교적 단순하고 뚜렷한 성모와 성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명한 발음을 하기가 쉬웠다.

둘째, 중국의 외국지명 조자(造字) 원리에 부합하고, 중국인에게 단순 명쾌하게 한 나라의 수도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首爾 이미지의 현시성(顯示性)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바이두를 통해 전 세계 204개 국가 수도의 중국어 이름을 조사해보면, 중국어 수도 이름 가운데 爾자가 들어가는 수도 이름은 23개나 되며, 이들 가운데 爾자로 끝나는 중국어 수도 이름은 11개가 있다. 爾로 끝나는 중국어 수도 이름을 나열하면 [표1]과 같다.首爾은 중국의 외국 수도의 조자 원리에 부합하는 이름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 일본의 수도인 도쿄(東京)는 둘 다 경(京)을 써서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발음에 가까운 이름을 지으려면, 경(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首爾은 수도(首都)의 수(首)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수도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어로 지어진 된 세계 204개 국가의 수도 이름 가운데, 首자가 첫머리에 오거나 首자가 들어간 수도 이름은 아예 하나도 없었다. 首爾은 首자가 들어간 세계에서 유일한 중국어 수도 이름으로서, 이를 쓰는 것은 그 이름을 남다르게 드러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셋째, 이미지가 밝고 아름다우며,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철학을 담아야 한다. 이미지가 나타내는 분위기와 의미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表意文字)이므로, 글자 하나

번호	영문 국가명	영문 수도명	소속대륙
	한글 국가명	한글 수도명	
	중국어 국가명	중국어 수도명	
1	Afghanistan	kabul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카불	
	阿富汗	喀布爾	
2	Algeria	Algiers	아프리카
	알제리	알제	
	阿爾及利亞	阿爾及爾	
3	Andorra	Andorra la Vella	유럽
	안도라	안도라	
	安道爾	安道爾	
4	Belgium	Brussels	유럽
	벨기에	브뤼셀	
	比利時	布魯塞爾	
5	The Republic of Congo	Brazzaville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브라자빌	
	剛果共和國	布拉柴維爾	
6	Gabon	Libreville	아프리카
	가봉	리브르빌	
	加蓬	利伯維爾	
7	Gambia	Banjul	아프리카
	감비아	반줄	
	岡比亞	班珠爾	
9	Micronesia	Palikir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팔리키르	
	密克羅尼西亞	帕利基爾	
10	The Federation of Saint Kitts and Nevis	Basseterre	중앙아메리카
	세인트키츠 네비스	바스테르	
	圣基茨和尼维斯聯邦	巴斯特爾	
11	Senegal	Dakar	서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塞內加爾	達喀爾	

[표1] 爾로 끝나는 중국어 수도 이름

하나에는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Washington)의 중국어 표기는 ‘華盛頓’(Huáshèngdùn)이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Washington (워싱턴)의 이름으로부터 그 발음을 빌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 글자가 담고 있

는 한자의 의미를 통속적으로 풀어보면, “꽃들(華)이 무성하게 피어있어서(盛)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게(頓) 하는 수도”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라 이름인 미국(美國)의 ‘아름다운 나라’와 잘 어울린다. 독일의 베를린(柏林 [Bólin])은 “측백나무(柏) 숲(林)이 우거진 수도”, 영국의 런던(倫敦[Lúndūn])은 “인륜(倫)이 두터운(敦) 수도”, 이탈리아의 로마(羅馬[Luómǎ])는 “말(馬)들을 펼쳐(羅) 늘어놓은 수도”라는 통속적인 뜻풀이가 가능하다. 워싱턴은 ‘화성둔’, 베를린은 ‘보린’, 런던은 ‘룬둔’, 로마는 ‘뤄마’로 발음되어, 원래의 발음에 가까우면서도 긍정적 이미지와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는 글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중국어 이름도 이들 수도의 중국어 이름들처럼 본디 발음에 가까우면서도, 그 이미지와 의미가 아름답고 지향하는 철학적 가치를 담아 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넷째, 글자의 글자 수와 획수가 적어야 한다. 문자의 상용성(常用性)과 그 형태의 간편성(簡便性)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서울이라는 글자가 2음절로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의 중국어 이름도 2음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인에게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홀수의 글자 수인 3음절 이름보다는 안전한 느낌을 주는 짝수의 글자 수인 2음절이 좋다고 보았다.¹⁴⁾ 아울러 그 글자는 쉬운 상용한자에 속하고 획수도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다. 중국어 간체자인 首尔는 2음절 총 9획과 총 5획, 모두 14획으로 이루어져서 비교적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首자는 한국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와 중국의 현대한어상용자(現代漢語常用字) 2,500자 안에 들었지만, 아쉽게도 爾과 그 간체자인 尔은 두 자 모두 그 두 안에 들지 못했다. 爾은 총 14획으로 그 획수가 많았고, 尔은 한국인에게는 낯선 간체자라는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爾의 간체자인 尔은 획수가 적어서 좋았다.

다섯째,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름의 역사성(歷史性)에 대하여 고

14) 중국어로 홀수는 ‘單數’ 또는 ‘奇數’이고, 짝수는 ‘偶數’이다. 중국인의 오래된 의식으로 보면, 짝이 있는 ‘偶數’가 정상적이고, 짝이 없는 ‘單數’는 일상적이지 않은 수(奇數)이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수사법에 있어서도 앞뒤로 서로 짝을 맞추는 대우(對偶)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려하였다. 서울의 중국어 이름은 적어도 역사적인 유래나 근거가 있는 글자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서울은 조선 시대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百濟) 시대 초기 도읍지였던 위례성(慰禮城)이 있던 곳으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조선 시대 서울은 '수선(首善)'이라고 표제(標題)된 적이 있었다. [그림3]은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 서울지도이다. 여기에는 《수선전도(首善全圖)》라는 표제가 달려 있다. 이 수선(首善)이라는 말은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그림3] 《수선전도(首善全圖)》
국립중앙박물관

《사기·유림열전·공손홍(史記·儒林列傳·公孫弘)》: “그러므로 교화를 시행하려면, 가장 훌륭한 본보기를 세워서 수도로부터 시작하여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르게 해야 한다.(故教化之行也, 建首善自京師始, 由內及外.)”

여기에서 수선(首善)은 建의 목적어인 명사로 쓰였다. 首는 ‘최고의’, ‘ 으뜸가는’, ‘가장 훌륭한’의 의미이고, 善은 ‘훌륭한 본보기’, ‘모범이 되는 것’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선(首善)은 ‘가장 훌륭한 본보기’의 뜻이 된다. “교화를 시행하려면, 가장 훌륭한 본보기(首善)를 세워서 수도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수도 안으로부터 지방 바깥으로 교화의 본보기가 천하로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그 뒤로 이 수선(首善)은 ‘교화의 모범이 되는 수도’라는 뜻을 담게 되었고, 수도(首都)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首爾의 首는 ‘수선(首善)’의 首로부터 그 정신과 역사성을 이어받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였다.

여섯째, 글자의 외적 형상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문자의 조형적 심미성에 대하여 고려하였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상형문자가 많아서, 글자의 외적 형상이 어떤 그림들을 떠올리게 하는 특징이 있다. 首자와 爾자와 尔자의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초계간백(楚系簡帛),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대표적인 자원자형(字源字形) 하나씩만 살펴보면, [표 2]의 首·爾·尔의 字源字形

首의 字源字形			
甲骨文	金文	楚系簡帛	說文
			
爾의 字源字形			
甲骨文	金文	楚系簡帛	說文
			
尔의 字源字形			說文
	金文	楚系簡帛	說文
			

[표 2] 首·爾·尔의 字源字形

과 같다.¹⁵⁾ 首·爾은 갑골문에서부터, 尔은 금문에서부터 보이는 아주 오래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글자가 조형적으로도 아름다웠다. 특히 首·爾·尔 세 글자 모두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는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¹⁶⁾

아울러 본인은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다음의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람들에게 서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서울의 중국어 이름으로 응모한 또 다른 이름들 가운데에는

15) [표 2] 글자의 이미지들은 漢典(<https://www.zdic.net/>)의 字源字形에서 빌어왔다. 首·爾·尔의 더 많은 다른 갑골문, 금문, 초계간백의 자형(字形)을 볼 수 있다.

16)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9): 갑골문 首자와 爾자에 대한 풀이는 다음과 같다. ○ 首: 사람 머리의 형상을 본떴으며, 그 윗부분에 머리카락의 형상이 남아 있거나 머리카락의 형상을 생략한 것은 (갑골문의 首자가) 모두 같다. ① 머리, ② 지명. (993쪽). ○ 爾: 어떤 형상을 본떴는지 알 수 없다. ① 人名, ② 方國名, ③ 不爾로 쓰인 예가 있으나 그 뜻이 뚜렷하지 않다. (357쪽)

首塢爾(서우우얼)과 首兀爾(서우우얼)이 있었다. 그런데 首塢爾의 塢(독 오)에는 '지세가 주변이 높고 중앙이 움푹 들어간 곳, 작은 성루, 촌락'의 뜻이 있다. 塢를 쓰게 되면, 서울이 분지 또는 작은 성루나 촌락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首兀爾의 兀(우뚝할 울)에는 '우뚝하다, 풀과 나무가 없는, 민둥 민둥하다'라는 뜻이 있다. 兀를 쓰게 되면, 서울이 페루(Peru)의 안데스산맥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마추 픽추(Machu Picchu)같은 고대의 요새 도시, 또는 민둥민둥한 곳에 자리 잡은 풀과 나무가 하나도 없는 도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¹⁷⁾

둘째, 부정적인 이미지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발음이 들어 있는 글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首塢爾과 首兀爾은 서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미의 글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首塢爾의 塢에는 烏(까마귀 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까마귀는 중국인에게도 부정적 의미의 '탐욕스러운' 새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¹⁸⁾ 首兀爾 안의 兀은 '높고 위가 평평한 지형'의 모습을 따른 글자이다. 머리카락이 없는 지형을 가리킨다. 따라서 兀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멍청한, 어리석은'의 뜻이 있다. '머리카락이 없는 멍청한 도시'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이름이 된다. 참고로 《장자》에 나오는 '兀者'는 '형벌을 당하여 한쪽 발이 잘린 사람'을 뜻한다.¹⁹⁾

서울의 '서'에 해당하는 중국어 글자로 '首'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었으나, 서울의 '울'에 해당하는 중국어 글자로 어떤 글자를 쓸 것인가에 대해

17) 한편 '首兀爾'의 '首兀'를 도치시킨 '兀首'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다.'라는 뜻이 있어서, 쓸데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

18) 명(明) 이시진(李時珍) 《본초강목·남침승3·까마귀(本草綱目·禽三·烏鴉)》: "까마귀는 큰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성질이 탐욕스러운 맹금류이다. (烏鴉大觜而性貪鷲.)"

19) 《장자·덕충부(莊子·德充符)》: "노나라(魯國)에는 형벌로 한쪽 발이 잘린 사람(兀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왕태(王骀)였다. 그런데 그를 따르며 배우려는 사람이 공자의 제자들만큼이나 많았다. (魯有兀者王骀, 從之遊者, 與仲尼相若.)" 성현영(成玄英)이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풀이를 달았다: "형벌로 한쪽 발이 잘린 사람을 울(兀)이라고 한다. (刑一足曰兀.)" 한편 '도울(樛杻)'에도 '兀'자가 들어 있는데, 이 '도울'은 중국의 신화와 전설에 나오는 사악한 괴물 또는 흉악한 악인을 가리킨다.

서는 이견이 많았다. 중국어에는 ‘울’의 발음을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한 음절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wu’(우)와 ‘er’(얼)을 결합하여 ‘울’에 해당하는 글자를 만들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首塢爾([shǒuwù'ěr] 서우우얼), 首兀爾([shǒuwù'ěr] 서우우얼)을 비롯하여, 首午爾([shǒuwǔ'ěr] 서우우얼), 首屋爾([shǒuwū'ěr] 서우우얼) 및 그 유사형인 首沃爾([shǒuwò'ěr] 서우워얼) 등이 있었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우(wu)’ 발음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미의 글자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汙(더럽다), 惡(미워하다), 誤(그르치다), 霧(안개), 兀(어리석다), 無(없다), 烏(까마귀), 勿(하지 말라), 鳴(슬프구나), 塢(군사시설), 誣(속이다, 모함하다), 侮(모욕하다), 蕪(풀이 우거지다), 蜈(지네), 岫(민둥산). 따라서 본인은 ‘wu’의 발음이 나는 글자를 따로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首爾’의 ‘首(shǒu)’자 안에 이미 우(u)의 발음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5. 首爾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

현재 중국에서 首爾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은 거의 사라졌고, 首爾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뉴스, 광고, 일기예보, 지도, 공항 등에서 서울의 중국어 표기는 首爾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首爾이 서울의 발음을 모방한 글자 조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이 首爾의 이름을 지을 때, 발음의 유사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은 首爾이라는 이름 안에 으뜸가고, 밝고,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도시의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首와 爾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의미들을 자유로이 조합시켜서 새롭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首와 爾 두 글자가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배제하였다.

首와 爾의 결합이 기본적으로 한자 조합의 문법에 부합하고 훌륭한 이미지와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문법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름 짓기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행위로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하는 과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華盛頓)이나 이탈리아의 로마(羅馬)나 영국의 런던(倫敦)과 같이 중국인이 만든 외국 수도의 중국어 이름들도 한자 조합의 문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이름들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이름들이 그냥 본래의 발음을 음차해온 것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이들 한자로 조합된 이름이 문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넘어서, 그로부터 그 나라와 수도에 대한 모종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본인은 首와 爾을 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만들면서, 다소 통속적이고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만든 이미지와 의미에 빈틈이나 여백이 생길 경우, 그 부분은 논리적 연상(聯想)으로 채우기로 하였다. 고대 중국어 문장에서 의미의 빈틈이나 여백은 자주 발생하며, 그 부분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해석자의 논리적 연상(聯想)으로 채워야만 비로소 의미를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본인은 首爾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를 창조하려고 하였다.²⁰⁾

5.1 으뜸가는 수도

① 首爾의 首에는 ‘머리, 우두머리, 임금, 가장 훌륭한, 최고의’ 등의 뜻이 있다. 단어 또는 관용어로는 ‘수령(首領)’, ‘원수(元首)’, ‘수굴일지(首屈一指)’

20) 아래 글자들의 뜻은 《漢語大詞典》과 《漢韓大辭典》과 《大漢和辭典》 등을 참조하였다.

등이 있다.²¹⁾ 고대의 문장에서 ‘임금,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인 용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익직(書·益稷)》: “신하들이 즐거우면, 임금은 흥성하고, 백관들은 화락하리라.(股肱喜哉, 元首起哉, 百工熙哉.)”²²⁾

《장자·도척(莊子·盜跖)》: “성공한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꼬리가 된다.(成者爲首, 不成者爲尾.)”

② 爾은 고대의 문장에서 조사(助詞)로서, 구(句)의 맨 끝에 쓰여서 긍정을 나타낸다. 우리말로는 “~나이다!” 또는 “~로다!”로 풀이할 수 있다.

《맹자·만장상(孟子·萬章上)》: “답답한 마음으로 그대를 그리워하였나이다!(鬱陶思君爾.)”

따라서, 이들 이미지를 조합하면 首爾은 ‘으뜸/첫 번째/우두머리가 되는 수도로다!’의 뜻이 된다. 앞서 말했던 首善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수도’와도 잘 어울린다. 수도 이름으로서 다른 수식어나 풀이가 필요 없는 힘차고 강력하고 선명한 이미지와 뜻을 가진 이름이다.

5.2 맨 처음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밝게 비추는 도시

① 首에는 ‘처음, 맨 먼저, 첫머리, 처음으로 시작하다’의 뜻이 있다. 단어로는 ‘수단(首旦)’, ‘수도(首度)’, ‘수창(首創)’ 등이 있다.²³⁾ 고대의 문장에서 ‘처

21) 수굴일지(首屈一指): 첫 번째, 으뜸, 손가락으로 수를 셀 때 엄지손가락을 첫 번째로 꼽는 데에서 이른다.

22) 이에 대하여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尙書傳)》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원수는 임금이다.(元首, 君也.)”

23) 수단(首旦): 아침. 수도(首度): 처음, 첫머리. 수창(首創): 창시하다.

음, 첫 번째, 시작하다/되다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이아·석고·상(爾雅·釋詁·上)》: “수(首)의 뜻은 ‘처음’이다.(首, 始也.)”

《공양전·은공·6년(公羊傳·隱公·六年)》: “《춘추(春秋)》는 설령 기록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 없더라도, 한 해의 네 계절의 첫 번째 달(1월, 4월, 7월, 10월)이 지나가면 그달이 무슨 달인 지를 기록하였다.(春秋雖無事, 首時過則書.)”²⁴⁾

《노자(老子)》: “예(禮)라고 하는 개념은, 충성과 신의가 부족한 (사회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夫禮者, 忠信之薄而亂之首.)”

② 爾에는 ‘창틀의 꽃무늬 창살’ 또는 ‘창틀을 통하여 빛이 밝게 비치어, 그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의 뜻이 있다.

《설문해자·리부(說文解字·彡部)》: “[爾]: (아름답다는 뜻인) 려이(麗爾)는, (정교하게 화려하다는 뜻인) 미려(靡麗)의 뜻과 같다. (또는 탁 트여 밝다는 뜻과 같다.) 冂(문지도리 경)의 뜻으로부터 말미암고 𠂔(밝은 모양 리)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은 회의자(會意字)인데, (爾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𠂔는 구멍이 트여 밝은 것을 뜻하며, (爾의 윗 부분인) 이(尔: 너 이/가까울 이)는 발음 부분이다. 이것(爾)은 爽(시원할 상)과 더불어 (𠂔의 뜻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뜻(𠂔의 ‘밝은 모양’의 뜻)을 함께 한다.([爾]: 麗爾, 猶靡麗也. 从冂, 从𠂔, 其孔𠂔, 尔聲. 此與爽同意.)”

《설문해자(說文解字)》의 爾에 관한 풀이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송(宋) 서계(徐鍇) 《설문해자계전(說文解字繫傳)》: “려이(麗爾)는 또렷또렷

24) 이에 대하여 《춘추공양전주소(春秋公羊傳注疏)》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首는 처음의 뜻이다. 時는 네 계절의 뜻이다. 過는 지나가다의 뜻이다.(首, 始也. 時, 四時也. 過, 歷也.)”

띠엄띠엄 점을 찍은 것처럼 환히 밝게 나타나는 모습이다.(麗爾, 曆曆然希跡點綴見明也.)”

청(淸) 단옥재(段玉裁: 1735-1815)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 “려이(麗爾)는 고어(古語)이다. 미려(靡麗)는, 허신(許慎)이 살았던 후한 시대 사람의 말이다. (후한 시대 당시의) 현대어로 고어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그래서 ‘~와 같다’라고 말한 것이다.(麗爾, 古語.靡麗, 漢人語, 以今語釋古語, 故云猶.)”

청(淸) 요문전(姚文田: 1758-1827) · 엄가균(嚴可均: 1762-1843) 《설문교의(說文校議)》: “미려(靡麗)는 ‘麗慶’가 되어야 한다.(靡麗當作麗慶.)”²⁵⁾

청(淸) 주준성(朱駿聲) 《설문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 “爾자는, 그 본디 뜻은 창틀의 살들이 교차하는 무늬가 또렷하고 아리따워서 볼 만한 것이다.(爾, 本義爲窗甃之交文玲瓏可觀.)”

양수달(楊樹達: 1885-1956) 《적미거소학술림 · 석리(積微居小學述林 · 釋效)》: “爾가 冂(문지도리 경)의 뜻으로부터 말미암고’라는 것은, 창문의 바깥 틀을 가리키는 것이다. ‘窰’는 그 창문틀 안 살들이 교차하는 무늬인데, 교차하는 무늬 사이가 트여있는 것이다.(爾从冂者, 窗甃之外匡, 窰其交文, 交文之間則空也.)”

이들의 풀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爾의 맨 윗부분과 가운데를 관통하는 부분인 ‘尔’(이)는 음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뜻을 구성하는 ‘冂’ 부분은 창문의 틀을, 그리고 아울러 뜻을 구성하는 ‘窰’ 부분은 창문틀 안의 살들이 교차하는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창문 살들 틈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와서 또렷하고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미지를 조합하면, 首爾은 ‘맨 처음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밝게 비추는 도시’의 뜻이 된다. 본디 한글의 서울에는 ‘동쪽(시)을 신성시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있는 곳’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²⁶⁾ ‘동쪽(시)을 신성시하는’ 의미와 ‘날이 새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글의 ‘시’, 그리고 ‘맨 처음

25) 麗慶: 창문 살들 사이가 구멍으로 트여서 밝다는 뜻이다.

26) 林東錫, <서울(首爾) 名稱 淵源考>(중국어문학연구회, 《中國語文學論集》 제47號, 2007).

아침 햇살이 비추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중국어의 首爾의 이미지와 뜻이 서로 잘 어울린다. 문화 문명이 밝게 빛나는 도시의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싶었다.

5.3 맨 먼저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도시

- ① 首에는 '으뜸, 맨 먼저'의 뜻이 있다.
- ② 爾에는 '꽃송이가 많이 달린 모양. 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양'의 뜻이 있다.

《시·소아·채미(詩·小雅·采芣)》: “저 흐드러지게 핀 꽃들은 무엇인가? 상채(常棣)의 꽃이로다.(彼爾維何? 維常之華.)”²⁷⁾

따라서 이들의 이미지를 조합하면, '맨 먼저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도시'의 뜻이 된다. 과학 기술과 문화 예술이 꽃피는 도시라는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싶었다.

5.4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같은 도시

- ①a 首에는 '사람이/을 갓 태어나다/태어나게 하다.'의 뜻이 있다.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 머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방언·13(方言·13)》: “짐승이 갓 태어나는 것을 鼻(코가 나온다)라고 일컫고, 사람이 갓 태어나는 것을 首(머리가 나온다)라고 일컫는다.(獸之初生謂之鼻, 人之初生謂之首).”

- ①b 首에는 '으뜸의' '우두머리'의 뜻과 '맨 처음 만들다'의 뜻이 있다. 맨 처음

27) 이에 대하여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은 다음과 같은 풀이를 달았다: “爾는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핀 모양이다.(爾, 華盛貌.)”

어떤 것의 기준을 만들어 쓸모 있고 가치 있게 만들다의 뜻이다.

《한서·율력지·상(漢書·律曆志·上)》: “북평(北平)의 후(侯)인 장창(張蒼)이 율력에 관한 일을 맨 처음 만들었다. (北平侯張蒼, 首律曆事).”²⁸⁾

①c 首에는 ‘핵심, 요점, 가장 중요한/하게 여기는 것’의 뜻이 있다.

《서·진서(書·秦誓)》: “공이 말하였다: 아아, 나의 신하들이여, 떠들지 말고 들으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말의 가장 중요한 점을 고하겠소. (公曰: “嗟! 我士! 聽無譁. 予誓告汝群言之首.”)²⁹⁾

② 爾에는 ‘너, 너희, 그대’의 뜻이 있다.

《시·소아·무양(詩·小雅·無羊)》: “누가 너더러 양이 없다 하리오. 300마리로 무리를 지었거늘(誰謂爾無羊, 三百維羣)”³⁰⁾

《서·반경(書·盤庚)》: “무릇 너희들은, 서로 알리도록 하라. 지금으로부터 뒷날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너희의 일을 공경히 하고(凡爾衆, 其惟致告, 自今至于後日, 各恭爾事.)”

《정자통·효부(正字通·爻部)》: “내가 남을 일컬을 때 그대(爾)라고 부른다. …… 고대에 신하가 임금에 일컬을 때 모두 그대(爾)라고 불렀다. (我稱人曰爾 …… 古人臣稱君皆曰爾.)”

이들 이미지를 한데 아우르면, 首爾은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처럼), 처음으로 당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며,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도시’의 뜻

28) 이에 대하여 안사고(顏師古)의 《한서주(漢書注)》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首는 처음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을 일컫는다. (首, 謂始定也.)”

29) 이에 대하여 공안국(孔安國)의 《상서전(尚書傳)》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여러 말의 핵심이다. (衆言之本要.)”

30) 이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모시정전(毛詩鄭箋)》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爾는 너이다. (爾, 女也.)”

이 된다. 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성격 및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소중하게 품어주는 포용력 있는 도시의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싶었다. 이러한 음유(陰柔)의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양강(陽剛)의 이미지가 강렬한 首爾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완 순화시켜줘서 좋다.

5.5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도시

①a首에는 '앞머리, 앞길'의 뜻이 있다.

《좌전·성공·16년(左傳·成公·十六年)》: “갑오 날은 그름이었는데, 초(楚)나라 군대는 새벽에 진(晉) 나라 군대를 압박하며 진을 쳤다. 진(晉) 나라 군대의 장수들은 이를 격정하였다. 그러자 범개(范匄)가 종종걸음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밀어버리십시오. 군영 안에서 군진(軍陣)을 펴서, 군진의 대오가 나아가갈 앞머리 길을 트십시오.(甲午, 晦, 楚晨壓晉軍而陳. 軍吏患之. 范匄趨進, 曰: ‘塞井夷竈, 陳於軍中而䟽行首.’)”³¹⁾

①b首에는 '나타나다, 드러내 보인다'의 뜻이 있다.

《예기·간전(禮記·間傳)》: “(상을 당하면) 참취의 상복을 입는데, 무슨 까닭으로 삼으로 옷을 지어 입을 것인가? 삼으로 지은 옷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으로 (상을 당한 사람의 비통한) 그 속마음을 나타내어 그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斬衰³²⁾何以服苴? 苴, 惡貌也,

31) 이에 대하여 두예(杜預)는 《춘추경전집해(春秋經傳集解)》에서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䟽行首의 뜻은, 군진의 앞머리로 (초나라 군대가 막고 있는 아군의) 영루(의 앞길)을 터서 전투를 벌일 길을 만들라는 뜻이다.(䟽行首者, 當陣前決開營壘爲戰道.)” 이에 대하여 왕인지(王引之)는 《경의술문·좌전·술18·소행수(經義述聞·左傳·述十八·䟽行首)》에서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 ‘䟽行首’는 영루를 트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首는 마땅히 도(道)라고 읽어야 한다. 소(疏)는 통하도록 트는 것이다. 군진의 행렬(行列)과 대오(隊伍)가 나아가는 길을 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물과 아궁이를 이미 없앴으니, 대오가 나아가는 길이 트여서 막히는 곳이 없어지게 되었다.(…… 䟽行首, 非決開營壘之謂也. 首當讀爲道. 疏, 通也. 謂通陳列隊伍之道也. 井灶已除, 則隊伍之道疏通無所窒礙矣.)”

32) 참취(斬衰): 고대 다섯 종류의 상복의 하나. 거친 삼으로 지으며,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所以首其內而見諸外也.)”³³⁾

①c 首에는 ‘향하다, 머리를 ~쪽으로 바라보다’의 뜻이 있다.

《논어·향당(論語·鄉黨)》: “(공자께서) 병으로 앓고 있을 때 임금께서 문병오시면, (공자께서는) 머리를 동쪽을 바라보도록 향하였고, 조복을 몸에 엮고 서 띠를 그 위에 걸쳐놓으셨다.(疾, 君視之, 東首, 加朝服, 拖紳.)”³⁴⁾

② 爾에는 ‘너, 너희, 그대’의 뜻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들 이미지를 한데 아우르면, 首爾은 ‘당신의 앞길을 터주고, 당신의 가치를 (온 누리에) 드러내 주어, (온 누리 사람이)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는 도시’의 뜻이 된다. 구성원들을 미래 지향적으로 교육 양성하여, 세계인들과 교류 소통하고 드러내 주게 하며, 세계인의 모범이 되게 해주는 도시라는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싶었다.

5.6 으뜸으로 가득 찬 도시

① 首에는 ‘으뜸, 으뜸가는 것’의 뜻이 있다.

② 爾는 ‘滿(물이 가득하다 이)’와 그 뜻이 통한다. ‘滿滿’는 ‘가득히 많은 모

아랫단을 꿰매지 않는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과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입었고, 남편이 죽었을 때 처와 첩이 입었다. 선진 시기에는 천자가 세상을 떴을 때 제후가, 임금이 세상을 떴을 때, 신하가 입었다.

33) 이에 대하여 진호(陳澧)는 《예기집설(禮記集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首는 ‘밖으로 드러내다’의 뜻이다. 대체로 그 (상을 당한) 속마음의 애통함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首者, 標表之義, 蓋顯示其內心之哀痛於外也.)”

34) 이에 대하여 양백준(楊伯峻)은 다음과 같은 주를 달았다: “고인은 침대를 일반적으로 남쪽 창에 (머리말을) 서쪽에다 둔다. 임금이 오게 되면 동쪽의 계단을 거쳐서 걸어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공자는 동쪽을 바라보며 그를 맞이하려고 그런 것이다.(古人臥榻一般設在南窗的西面, 國君來, 從東邊臺階走上來, 所以孔子面朝東來迎接他.)”

습'이다.

《시·제풍·재구(詩·齊風·載驅)》: “네 마리 검은 말이 아름다우니, 드리운 고삐가 많고 많아라.(四騮濟濟, 垂轡瀾瀾.)”³⁵⁾

이를 조합하면, ‘으뜸으로 가득 찬 도시’의 의미가 된다. 으뜸가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가득 찬, 그리고 으뜸가는 인재와 물자가 가득한 도시의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싶었다.

6. 결론

首爾은 중국의 언어사에 있어서 이제껏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단어였고, 따라서 어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였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한, 首爾은 외국 수도의 시장이 그 수도의 이름을 중국어로 제작하여 중국 측에게 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그리고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하게 된 세계 최초의 중국어 수도 이름이다.

본인이 首爾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고려했던 이름 짓기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중국어 표기 발음은 한글 서울의 발음에 가까워야 한다. 둘째, 중국의 외국지명 조자(造字) 원리에 부합하고, 중국인에게 단순 명쾌하게 한 나라의 수도라는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셋째, 이미지가 밝고 아름다우며,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철학을 담아야 한다. 넷째, 글자의 글자 수와 획수가 적어야 한다. 다섯째, 역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 여섯째, 글자의 외적 형상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 아울러 본인은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다음의 두 가지 금기 사항을 설정하였다.

35) 이에 대하여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은 다음과 같은 풀이를 달았다: “瀾瀾는 많은 수가 무리 지은 모습이다.(瀾瀾, 衆也.)”

첫째, 사람들에게 서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글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부정적인 이미지나 의미를 담고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발음이 들어 있는 글자를 쓰지 않아야 한다.

본인은 으뜸가고, 밝고,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인간의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이상과 철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담고 있는 서울의 중국어 이름을 지어보고 싶었다.

본인이 首와 爾의 결합을 통하여 빚어내려고 하였던 首爾의 이미지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으뜸가는 수도. 둘째, 맨 처음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밝게 비추는 도시. 셋째, 맨 먼저 꽃송이들이 흐드러지게 피는 도시. 넷째,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같은 도시. 다섯째,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도시. 여섯째, 으뜸으로 가득 찬 도시.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뜻깊은 인생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원과 희망이 담겨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국어 이름 '首爾'에 대해서라.

< 參考文獻 >

阮元, 《十三經注疏》

許慎, 《說文解字》

徐鍇, 《說文解字繫傳》

段玉裁, 《說文解字注》

姚文田·嚴可均, 《說文校議》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9.

羅竹風, 《漢語大詞典》, 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8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8.

諸橋轡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59.

이재훈 역해, 《書經》, 서울: 고려원, 1996.

- 엄익상, <首爾 : 서울 새 중국어 지명의 이론적 근거>, 《중어중문학》 제36집, 2005.
- 林東錫, <‘서울’(首爾) 名稱 淵源考>, 《中國語文學論集》 제47호, 2007.
- 孟柱億, <‘서울’ 중국어표기 정정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中國語教育과研究》, 2008.
- 孟柱億, <‘서울’ 중국어표기 정정을 둘러싼 소통의 문제>,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6집, 2010.

< Abstract >

The Principles of Naming ‘首爾’ -- the Chinese Name of Seoul, and the Creation of Its New Images and Meanings

Hong, Younki

I made the name ‘首爾’, the Chinese name of Seoul, Capital of South Korea, in 1994. On January 19, 2005, the mayor of Seoul, Lee Myung-bak announced that he finally decided to give Seoul a Chinese name, ‘首爾’. He asked the Chinese to call Seoul ‘首爾(Shouer)’ instead of ‘漢城(Hanseong)’ which was the name of Seoul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naming principles that I considered when I named Seoul are as follows:

First, the pronunciation of Seoul’s Chinese name should be close to the sound of Korean ‘서울’(Seoul). Second, it must conform to Chinese principles of naming foreign places. It must bring the Chinese people a clear image of the foreign capital. Third, its image should be bright and beautiful, and its meaning should have a philosophy to respect human values. Fourth, the number of Chinese letters and strokes should be small. Fifth, it should have a historical background. Sixth, the external shape of letters should have a beautiful structure. Seventh, it should not contain any letters or pronunciation that make Chinese people misunderstand or conjure up negative images.

I hoped to create Seoul’s Chinese name containing images and meanings of

bright, beautiful and pursuing political ideals to respect human values.

In ancient Chinese word ‘首’, it has the following meanings: Head, Leader, Beginning, Main points, Road, First, Best, Give birth to, Face to and Lower one’s head to show respect. ‘爾’, this word has the following meanings: You, Luxuriant flower, Beautiful, Morning sun shines through the window, A lot of and Be full of.

By combining ‘首’ and ‘爾’, I tried to create new images and meanings of ‘首爾’. These are as follows:

First, the foremost city that sets good examples for other cities to emulate. Second, the city where the sun shines brightly through the window early in the morning. Third, the city where early spring comes, thus, the first luxuriant flowers bloom. Fourth, the city like a merciful mother who gives you unique value and new life. Fifth, the city that reveals your true worth. Sixth, people are at their best, hence the city full of the best people.

One’s name contains the family’s hope for one’s valuable life and bright future. How much more the Chinese name of Seoul — ‘首爾’, the capital of South Korea!

Key words: Seoul(서울), Shower(首爾), Hanseong(漢城), Hancheng, capital, South Korea, naming, principle, creation, human value, sunshine, luxurian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5	2020. 08. 14	2020. 08. 26	2020. 09. 30